

NO 마스크 캠퍼스 LIFE

코로나19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강의를 듣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캠퍼스 학우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대학보사가 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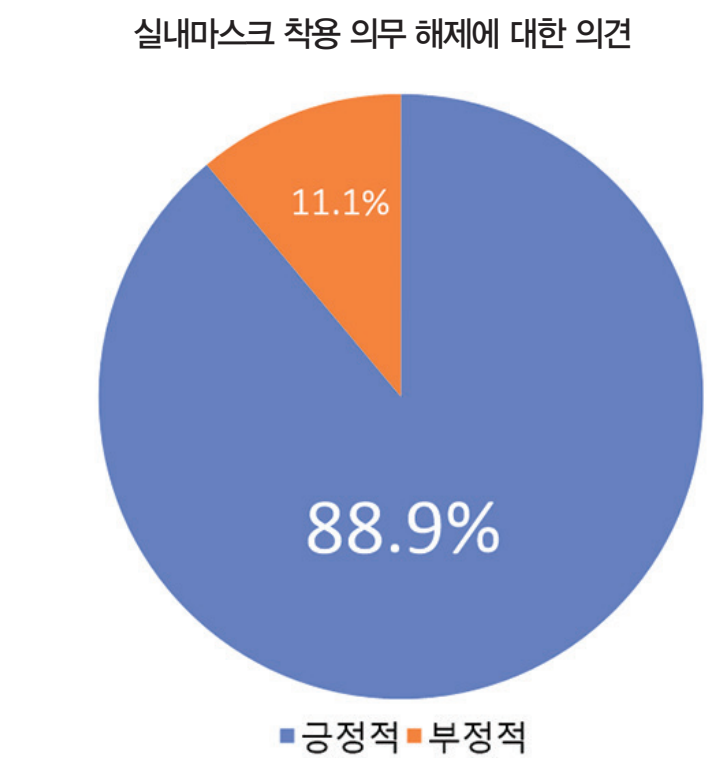
현재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약 90%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흡의 편안함과 마스크가 주는 답답함에서 벗어난 점이 주된 이유였다.

이외에도 마스크를 벗은 후 서로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져서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여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강의실에서 기침하는 학생이 있어 불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강의 중 마스크 착용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앞선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 중 약 59%가 수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앞선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답변자 중 약 31%가 수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로 인한 답답함이 주된 이유였고, 마스크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해 착용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존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로는 끝까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외모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대부분 마스크를 벗으면 편해서 쓰지 않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우들도 종종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신문방송학과 홍장선 교수님, 교양대학 전병국 교수님께 여쭙봤다.

교수님 두 분 모두 강의실에서 마스크가 해제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율이 마스크를 썼을 때에 비해 더욱 상승한 것과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비언어적 표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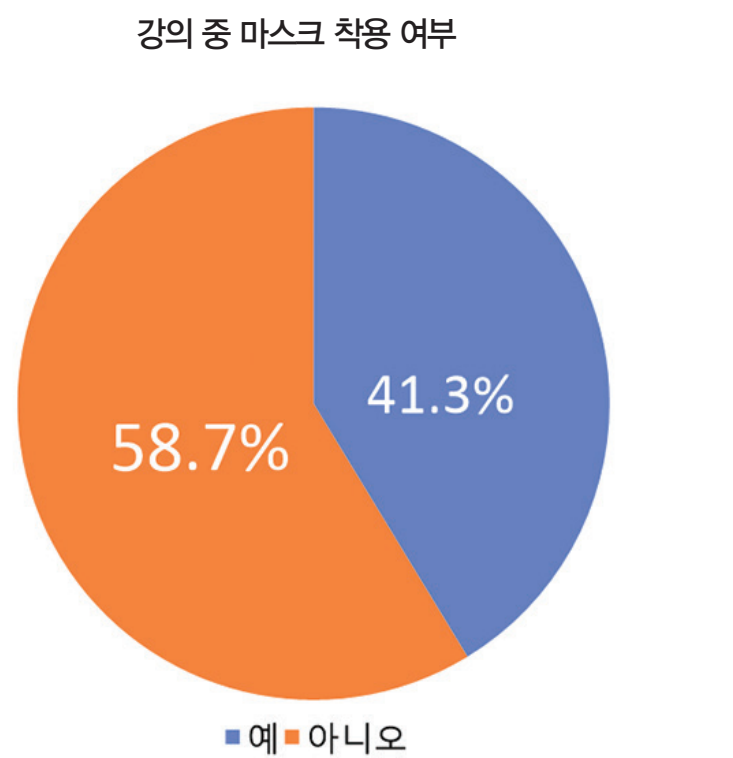
홍장선 교수님은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 개인의 의견



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해주셨고 전병국 교수님은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진행하시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강의 중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다.

홍장선 교수님은 환절기 때 감기에 자주 걸리시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답변해주셨다. 또 평소 강단에서만 수업하지 않고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수업하시기 때문에 침을 튀기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신다고 하셨다.

전병국 교수님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소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잘 안 보여서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죠”라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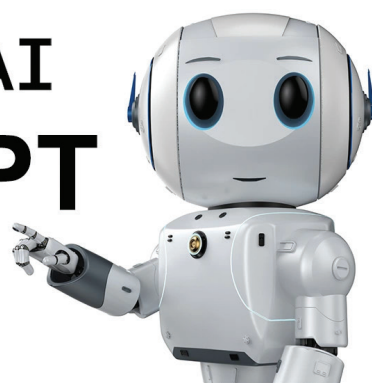
지금까지 마스크 없는 강의실에 대한 우리캠퍼스 학우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알아봤다. 대부분 편안함과 의사소통의 용이함을 이유로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의견들도 더러 존재했다.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가 하루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 설문조사 기간: 03/26일 ~ 29일
조사 모집단: 우리캠퍼스 학우 대상 189명

/전영웅 기자 jyo0822@naver.com

/맹가는 수습기자 aod1558@naver.com

OpenAI ChatGPT



그 속으로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모델로, 인공지능이 기계가 생성한 문장을 통해 사용자와 대화 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해 △챗봇 △번역 △요약 △작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해당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 방법을 사용해 대화 형태의 문장을 생성한다. 해당 모델은 이전의 대화 내용을 입력값으로 사용해,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그렇기에 ChatGPT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 형식의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더불어 수백만 개의 문장을 학습해 다양한 주제와 문체를 다룰 수 있다. 언어와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한다.

작년 11월 30일 공개된 ChatGPT의 사용자는 한 주 만에 1백만, 한 달이 지나 5천 7백만, 두 달 만에 1억 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이로 인해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ChatGPT에 대한 기사들과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마존에서 검색하는 ChatGPT를 주제로 하는 책을 100여권 이상 찾을 수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그만큼의 책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 지난 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ChatGPT를 잘

연구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듯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는 ChatGPT라고 할 수 있다.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전라도 등 자치단체들도 ChatGPT를 통해 도정 활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방안이다.

이 외에도 ChatGPT의 활용처는 무궁무진하다. IT는 물론 △고객 서비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거의 대부분의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성능을 대폭 높인 'GPT-4'가 등장함에 따라 활용폭이 더 넓어졌다. 팩트 정확도가 40%, 기억력이 8배로 증가했으며, 한국어 정확도는 77%로 개선됐다.

여기서 우리는 ChatGPT의 '편리함' 때문에 생길 문제들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hatGPT 개발사 오픈AI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진들은 생성형 AI가 직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회계사를 비롯해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 미국 노동인구의 약 20%는 ChatGPT를 사용해 업무의 절반 이상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미국 노동인구의 80%는 ChatGPT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과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의 직업 대부분이 사라질 거라는 예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논문에서 ChatGPT에 적용된 GPT-4 기술이 △수학 △코딩 △의학 △법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무엇이 바뀔 것이고 얼마나 빨리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고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었다. 기술에 인간의 자리를 뺏길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똑똑하게 이용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아는 능력 △인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사용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진 기자 ijin4505@gmail.com